

■ 영화평 ■

지구화와 바이오크로싱 : 영화 <구글 베이비 Google Baby>

염운옥(이화여자대학교)

“당신의 배아가 페트리접시에서 자라는 동안 당신은 달빛에 빛나는 타지마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는 동안 별 다섯 개짜리 호텔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인도 뭍마이의 불임클리닉 광고”¹⁾

I.

가속화되는 지구화(globalization)는 상품과 자본과 인간의 이동을 더욱 빈번하게 만들고 있다. 자본에는 원래 국경이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좁아진 세계 덕에 사람들은 국가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든다.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시티의 연결망을 따라 글로벌 엘리트가 이동하고, 이주노동자는 세계를 떠돌며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다. 국제 이주민들의 권리 증진과 지원을 위해 1951년에 설립된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에 따르면, 현재 출생지를 떠나 살고 있는 인구는 약 1억 9천만 명으로 세계인구의 약 3%이다. 이 수치는 전 세계 인구 35명중 1명이 이주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의 프롤레타리아화(proletarianization of migration)’라고 일컬을 만큼 대량 이민과 이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의 모습이다.

이동하는 것은 성인만이 아니다. 제3세계의 버려진 아기들은

1) 백영경·박연규 편, 『프랑켄슈타인의 일상: 생명공학시대의 건강과 의료』(서울: 도서출판 밍, 2008), p.83.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 입양산업을 통해 제1세계로 이동한다. 아기들뿐만 아니라 인구 재생산의 수단과 재료가 되는 자궁, 정자, 난자, 배아와 같은 부품화된 신체 역시 이동하고 있다. 난자 기증과 대리모 행위가 아이가 없는 커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타적 행위라는 명분은 금전적 거래 앞에 매우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이주 노동자가 생산을 위한 노동력 상품으로서 종종 사람이 아니라 현대판 노예로 여겨지는 것처럼, 대리모의 자궁, 난자와 정자 역시 착취의 대상이 된다.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자본주의 아래서, 시장에서의 자유와 선택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앞에서 신체의 일부가 상품이 되는 건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장기매매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자나 난자쯤이야!

생식 기관의 전지구적 이동과 생식보조기술(ARTs: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의 지구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아디티야 바라드와이(Aditya Bharadwaj)는 ‘바이오크로싱(biocrossing)’이라는 신조어를 제시했다. 바라드와이의 정의에 따르면 바이오크로싱이란 “생물학과 기계 사이, 지정학적, 상업적, 윤리적, 도덕적 경계들 간을 넘나들고 가로질러, 인간 신체의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분리와 결합 운동”²⁾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발달한 생식보조기술을 이용해 생물학적 아이를 갖기 위해 국가 경계를 넘어 수천 킬로를 여행하는 남녀들의 이동과 이 이동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들을 설명하는데 이 보다 더 적합한 개념은 없을 것이다.

II.

<구글 베이비>는 지구화 시대 바이오크로싱의 현주소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영화는 고발하거나 단죄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여준다. 담백하고 냉랭한 시선으로 인해 <구글

2) Aditya Bharadwaj, “Biosociality and Biocrossings: Encounters with Assisted Conception and Embryonic Stem Cells in India”, S. Gibbobs & C. Novak eds., *Biosocialities, Genetics and the Social Sciences-Making Biologies and Identities* (London: Routledge, 2008), p.103. 초츠나 A. 굽타, 「전지구화된 세계에서의 난자 기증자들과 대리모들 그리고 생식 시장」, 제1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지구지역시대 모성의 정치경제학』, p.7에서 재인용.

베이비>가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 소설 『멋진 신세계 Brave New World』나 영화 <아일랜드 Island> 같은 공상과학픽션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담았다는 현실성은 더욱 부각된다.

감독 지피 브랜드 프랭크(Zippi Brand Frank)는 1970년생으로 이스라엘 출생이다.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프랑스어와 예술을, 예루살렘의 히브리대학에서 법률과 저널리즘을 전공한 후 니이만 연구기금에 선발되어 하버드대학에서 저널리즘과 다큐멘터리를 공부했다. 현재 감독이자 프로듀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TV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몇 편 연출했으며 <구글 베이비>는 그녀의 장편 데뷔작이다.

<구글 베이비>는 2010년 4월 제1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국제학술회의 ‘지구지역시대 모성의 정치경제학’에서 특별 상영되었다. 학술회에서는 <구글 베이비> 이외에도 아이를 빼앗긴 입양모의 목소리를 담은 <회복의 길 Resilience>이 상영되었다. 지구의 한편에서는 미혼모의 아이들이 ‘해외입양아’란 이름으로 국경을 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과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자를 얻기 위해 정자와 난자가 착상할 자궁을 찾아 여행한다.

영화는 이렇게 시작한다. “이제 신용 카드만 있으면 당신의 성별에 관계없이 맞춤형 아기를 얻을 수 있다.” 고객이 유전자를 선택하고 돈을 내면, 온라인으로 구입된 정자와 난자는 수정되어 인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된다. 첨단 기술의 발달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면 부모로 만들어 준다. 필요한 것은 신용카드뿐이다.

<구글 베이비>는 미국·이스라엘·인도 3개국, 3대륙에 걸친 트랜스내셔널한 아기 생산 방식에 대해 말한다. 이스라엘의 기업가 도론은 자신을 베이비 프로듀서라고 소개한다. 게이인 도론은 미국에서 난자 기증자와 대리모 구해 딸 ‘탈리아’ 얻었다. 정자는 자신과 파트너의 것을 함께 썼다. 친구들에게 딸을 선보이는 파티에서 도론은 총경비가 14만 달러나 들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작은 아파트 한 채를 팔았다고 말한다. 10만 달러가 넘는 비용에 모두들 놀라고, 도론은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도론은 인도 구자라트주의 아난드에서 체외수정 및 대리출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나야나 파텔(Nayana H. Patel) 박사의 인터넷 광고를 발견한다. 그녀는 함께 일하는 대리모들을 데리고 광고에 출연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 대리모 여성들은 겸손하고 착하며 열정과 헌신으로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앙심도 깊고 모두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대리모를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파텔 박사는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을 돕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대리모가 받는 대가는 6,500달러, 약 700만원이다. 파텔은 대리모를 자원해 해외 커플의 아이를 임신한 약 50명의 여성을 데리고 있다. 그들 중 15명은 출산을 기다리며 병원 부속의 호스텔에 기거하고 있다. 일부 대리모들은 두 번째 대리모 행위를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백인 아기를 낳은 한 산모는 아기를 보여주자 흐느낀다. 아기는 곧바로 기다리고 있는 백인 커플에게 넘겨진다.

도론이 보기에 인도는 아웃소싱하기에 최적지이다. 기업은 인도로 프로그래밍 업무를 이관해 비용을 줄이고 있다. 대리출산은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이다. 임신출산도 인도에 아웃소싱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도론의 구상이다. 도론은 나야나 파텔을 만나러 인도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백인 아이를 원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체외수정까지 마치고 수정란을 냉동한 상태나 배아 상태에서 인도로 보내서 출산하는 비즈니스를 하면 어떨까 제안한다.

사업을 시작한 도론은 온라인 남자 기증 사이트를 바빠 서핑한다. 남자 기증 사이트는 마치 온라인 미팅 사이트 같다. 클릭하면 기증자 여성의 사진이 클로즈업된다. 대부분이 백인에 금발, 푸른 눈이다. 도론은 냉동배아 용기를 들고 인도의 거리를 바빠 걸어간다. 파텔의 병원에 고용된 대리모들이 불룩한 배를 안고 누워있는 장면을 위에서 비추며 영화는 끝난다.

III.

<구글 베이비>에서 보여주는 생식산업(fertility industry)의 분업은 왜 미국, 이스라엘, 인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물론 난자 기증자와 생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임클리닉은 미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같은 북서유럽의 커플들은 동유럽 여성들의 난자와 난모세포를 공급받아 스페인, 키프러스, 크레타, 벨리즈 같은 지역의 불임클리닉에서 시술을 받는다.

왜 인도일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높은 수준의 의료 인력과 시설이 있고 법적 규제가 거의 없다는 점 이외에도 비용이 싸다는 것이 중요한 유인 요인이다. 생식 산업에서 인도가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저렴한 비용이다. ‘제3세계 가격으로 제1세계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비 프로듀서’ 도론도 말하지 않는가, 인도는 아웃소싱에 최적지라고. 영미 유수 기업의 텔레마케팅 센터가 인도로 이전하듯이, 대리출산이라는 고비용 산업의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인도로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사실 인도는 생식보조기술이 발달한 국가 중의 하나다. 1978년 세계 최초의 시험관아기 루이스 브라운(Louise Brown)이 영국에서 태어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인도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 시험관아기 두르가(Durga)가 태어났다. 이 사례는 과학적 검증이 뒷받침되지 않아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인도의 생식보조기술 수준이 세계적 수준임을 보여준다. 인도가 생식산업을 포함한 의료 관광(medical tourism)을 육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난자를 파는 여성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녀들은 가련한 희생자가 아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생식시장의 행위자들이다.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돈이 없으면 무엇이랴도 팔아서 자신을 가꾸라! 난자를 팔아 번 돈은 대학등록금이 되고, 성형수술비가 되고, 교외의 근사한 주택이 된다. 생식시장에서 선호하는 멋진 외모와 뛰어난 유전형질을 가진 몸은 ‘정상적 몸’으로 준거 기준이 된다. ‘비정상적 몸’은 정상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자기검열과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다이어트, 운동, 성형 같은

자발적 노력을 통해 자신을 완벽하게 하는 자기배려의 기술을 구사할 뿐만 아니라, 태어날 세대에 대해서도 엄정한 선택을 한다. 자기배려의 기술로서 유연한 우생학(flexible eugenics)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신자유주의와 유연한 우생학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대리모 여성들은 어떠한가? 대리모를 희망하는 인도 여성들은 남편의 손을 잡고 클리닉을 방문한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자녀를 교육하고 집을 사기 위해 대리모 산업에 뛰어든다. 사실 빈곤이라는 요인을 빼놓고는 대리모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 아난드의 병원에 온 대부분의 대리모들은 인근 마을에 사는 가난한 여성들이다. 대리모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것이 여성 착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약 500달러에 불과한 인도에서 3,000~8,000달러를 지급받는 대리모는 고소득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난자 기증과 대리모 출산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이스라엘·인도를 잇는 시장과 유사한 생식시장이 일본·한국·중국 사이에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일반화될 때 발생하는 사회적·윤리적 문제는 모성을 더욱 강고한 가치로 만든다는데 있다. 바이오크로싱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시대에 모성의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진다. 난자 기증자, 대리모, 양육자 중에 ‘엄마’는 누구인가? 모성의 정의는 흐려지지만 역설적이게도 모성 이데올로기는 더 확고해진다. 시험관 시술, 대리모 출산 등등 유력한 선택지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도 그걸 선택하지 않는 여성에게 모성을 포기한다고 이기적이고 비정하다고 비난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으로 한국인의 수가 줄어들간다는 위기의 시대에 비용 몇 천 만원이 아까워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니!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한 해결책은 난자 거래와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정부 개입을 통해 규제한다 하더라도 대리모 행위의 적정 가격 설정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의 제공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생식 시장은 인간의 행복과 직결되는 생식의 자기결정권과 생식의 자유에 기반해 성립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도 <구글 베이비>를 보고 나서 이렇게 물을 수는 있을 것이다. 당신과 유전자를 공유하는 아기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 인도 대리모 여성이 흘리는 눈물을 상쇄할 만큼 값어치 있는 일인가? 아이의 웃는 얼굴에서 대리모의 눈물을 떠올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가난한 이웃 여성의 몸을 볼모로 삼는 ‘비인간적’인 ‘인간’ 재생산 시스템에 반기를 드는 일은 시작될 것이다. 그래야 아이를 낳고 기르는 ‘행복한 노동’이 다른 여성의 ‘소외된 몸’을 담보로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래야 타자와 더불어 살아갈 희망이 싹틀 수 있다.

woyeom@hanmail.net